

저자집단 분석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술커뮤니케이션 동향 연구*

A Study on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ies through Author Group Analysis

이 재 윤 (Jae Yun Lee)**

목 차

- | | |
|-----------------------|------------------------|
| 1. 서론 | 5. 학술지별 출판 선호도 분석 |
| 2. 학술지 출판 선호 경향 분석 기법 | 6. 저자집단의 변화와 신진 연구자 집단 |
| 3. 분석대상 데이터 | 7. 학술지 간 저자 공유 관계 분석 |
| 4. 4개 학술지 저자 분석 | 8.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의 저자를 분석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통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별 공저자 수, 귀환저자 비율, 투고선호지수, 저자집단 변화 추세, 연구자 유인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 학술지의 공동연구 수준, 학술지별로 연관된 저자집단의 형성 정도, 저자집단이 변화된 변곡점, 신진 연구자 집단의 특성, 학술지 간 저자 공유 정도 등이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2015년이 한국 문헌정보학 저자집단이 변화한 변곡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 등장한 신진 연구자들은 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전과 다소 다른 학술지 논문발표 행태를 보였다. 계량분석을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와 함께 활용된다면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 발전 전략에 대한 다각화 연구를 수행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uthorship of all articles published in four domestic LIS journals over a 20-year period from 2002 to 2021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cholarly communication through Korean LIS journals and suggest future prospect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co-authors, the proportion of returning authors, the publishing preference index (PPI), the author group change trend, and the researcher attraction index (RAI). The analysis revealed the level of collaborative research in each journal, the degree of formation of related author groups by journal, the inflection point of author group changes,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researchers, and the degree of author sharing between journals. Overall, 2015 was found to be an inflection point where the author community of Korean LIS journals changed. The newer generation of researchers showed a slightly different behavior of publishing papers than the older generation, as they mainly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These quantitative results could be triangulated with the qualitative interview data of previous studies to further strengthe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n LIS journals.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술지, 저자집단, 연구자 공동체, 투고선호지수, 연구자유인지수, 학술커뮤니케이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larly Journals, Author Group, Researcher Communities, Publishing Preference Index, Researcher Attraction Index, Scholarly Communications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22년 12월 2일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공주대학교 김혜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 ISNI 0000 0004 6490 0075)

논문접수일자: 2023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5월 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409-434,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409>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주요 학술지 중 창간년도가 가장 오래된 것은 한국도서관학회의 圖書館學(현 한국문헌정보학회지)으로서 1970년에 첫 호가 발행되었다. 이때를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역사는 2023년 현재 반세기를 넘어서게 되었다.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 이외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동문 중심으로 개별 대학 문헌정보학과(당시는 도서관학과)에서 결성된 학회나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발행하는 다수의 학술지가 도서관학회지, 도서관학연구, 도서관학회보, 도서관학론집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문헌정보학 학술 논문 발표의 장으로 함께 기능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협월보(1957년 창간)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1964년 창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1966년 창간)은 한국도서관학회의 圖書館學이 창간되기 이전에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주요 매체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손정표(2003)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이들 3개 기관지와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창립기념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관지와 문헌정보학과 발행 학술지의 이런 역할은 198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199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기관지가 소식지 성격으로 전환되고 학과 발행 학술지가 일부를 제외하고 쇠퇴하면서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은 학회지 중심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비롯한 주요 학회지가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학술논문 대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 당시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주도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로 표기) 체제가 성립되면서부터이다. 연구자가 KCI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연구업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종합 학술지 중에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1998년 7월에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999년 1월,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2001년 7월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발행된 4개 학회지의 모든 논문은 KCI에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KCI 체제 역사도 이미 2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섰고 KCI 체제도 20년을 넘긴 2022년 12월 2일, 4개 학회(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이하 가나다 순으로 표기)가 ‘문헌정보학 학회 활동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학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두 편의 논문(김수정 외, 2022; 이종욱, 김수정, 오상희, 2023)이 발간되었다. 이 두 편의 연구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학회 학술지의 발전 과제로 제시된 것은 독자층 확대, 현장성 강화, 국제화, 학술지 간 차별화 등이었다. 특히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연구자들은 학술지들이 주제 범위나 현장성 반영 정도, 국제화 노력 정도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특성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김수정 외, 2022).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4개 학회 학술지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저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계량서지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KCI 체제가 시작된 초기의 김성진, 정동렬(2002)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를 대표 학술지로 포함하였고, 이명희(2002), 유영준(2003),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2018)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제외한 3개 학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3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정순(2006)에서부터 최근의 강인서와 김혜진(2020), 정유경(2020), 김현정(2021), 김수정 외(2022), 장수현과 남영준(2022)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들 4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의 저자를 분석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통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집단 분석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커뮤니케이션 동향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문헌정보학 4개 학술지의 공동연구(집단연구)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 연구문제 2: 4개 학술지와 연관된 연구자 공동체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가?

- 연구문제 3: 4개 학술지 전체 저자집단이 변화한 변곡점은 언제인가?
- 연구문제 4: 변곡점 이후 부상한 신진 연구자 집단의 학술지별 선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4개 학술지 간 저자 공유 정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학술지별 공저자 수 분석(연구문제 1), 학술지별 귀환저자 비율(연구문제 2), 투고선호지수 분석(연구문제 2, 4, 5), 3년 범위 저자집단 변화 추세 분석(연구문제 3), 연구자 유인지수 분석(연구문제 5)을 실시하였다. 이중에서 귀환저자 비율, 투고선호지수, 연구자 유인지수에 대해서는 2장에서 소개하고 나머지 접근법은 관련 결과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계량서지적 기법으로 접근한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김수정 외, 2022; 이종욱, 김수정, 오상희, 2023)의 정성적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고려한다면 국내 학회 학술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일종의 다각화전략(triangulation)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술지 출판 선호 경향 분석 기법

그동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상으로 저자 혹은 연구자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공저네트워크(김현정, 2021; 이수상, 2010; 이재운, 2014), 공저비율(김현정, 2021), 논문당 저자 수(Kim, 2017) 등과 같이 공동연구를 주된 관심사로 하였다. 그런데 학술지 생태계

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결정하는 것, 즉 연구자의 학술지 출판 선호 경향(author preference)이다(Hsieh, 2017). 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 저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택 기준을 연구한 Lee, Yang, & Oh(2020)는 권위와 독자층, 동료심사 등이 주요 선택 기준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집단을 학문 공동체로 간주하고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Lee & Choi(2017)와 Nicolaisen & Frandsen(2021)이 있다. Lee & Choi(2017)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등재지 7종을 선택하여 논문을 발표한 저자집단이 중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학술지 결합 분석을 제안하면서 투고선호지수 PPI(Publishing Preference Index)와 연구자 유인 지수 RAI(Researcher Attraction Index)의 두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학술지 결합 분석을 통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기록관리학 분야가 세부 영역으로서 정착한 것과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종합 학술지로서 성숙하였다는 등 개별 학술지의 입지 변화를 밝히고 서로 관계가 밀접하게 결합한 학술지 쌍을 파악했다. 또한 Nicolaisen과 Frandsen(2021)은 Web of Science 문헌정보학 분야에 등재된 학술지 10종의 20년 간 저자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특정 학술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공동체 형성의 정도를 파악하면서 귀환저자(returning author)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귀환저자는 3년 이내에 동일 학술지에 논문을 다시 발표한 저자를 의미한다.

이 두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고유한 저자집단이 형성되는 정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국내와 해외로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접근방법에서도 각각 공시적인 방법과 통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ee & Choi(2017)는 해당 학술지의 저자집단이 동일 시기 타 학술지의 저자집단과 겹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공시적인 저자집단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와 달리 Nicolaisen과 Frandsen(2021)은 같은 저자가 직전 3년 동안 동일 학술지에 다른 논문을 발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통시적인 저자집단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접근방법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의 환경 차이 때문이다. Lee & Choi(2017)는 비교적 학문 공동체의 경계가 뚜렷한 국내 문헌정보학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전체 저자들의 게재 학술지 선택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유효했다. 하지만 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주제 분야가 세분되어 있고 타 학문분야와 연결되는 학제적인 성향도 훨씬 높다. 따라서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저자들이 동일한 학문공동체를 이룬다고 간주하기가 어렵기에 학술지 간 저자집단을 비교하기보다는 동일 학술지에 투고한 저자들만으로 대상으로 통시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Lee & Choi(2017)의 연구에서는 학술지 간의 저자 결합 정도를 이용해서 투고 선호 지수 PPI(Publishing Preference Index)와 연구자 유인 지수 RAI(Researcher Attraction Index)의 두 가지 지표를 제안하고,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8종 학술지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의 발행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록관리학지의 PPI가 크게 증가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인 4종 학술지의 PPI는 분석

기간('06-'14) 동안 변화가 적었지만 한국비블리아학회의 RAI가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다른 3종 학술지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술지 J의 PPI를 측정하는 공식과 학술지 J에 대한 학술지 K의 RAI 지수 공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Lee & Choi, 2017).

$$PPI(\text{저자 } A, \text{ 학술지 } J) = \frac{\text{저자 } A \text{가 학술지 } J \text{에 발표한 논문 수}}{\text{저자 } A \text{의 전체 논문 수}}$$

$$\text{Journal } PPI(\text{학술지 } J) = \frac{\text{학술지 } J \text{에 대한 각 저자들의 } PPI \text{ 합계}}{\text{학술지 } J \text{에 논문발표한 저자 수}}$$

$$RAI(\text{학술지 } J, \text{ 학술지 } K) = \frac{\text{학술지 } K \text{의 각 저자들의 학술지 } J \text{에 대한 } PPI \text{ 합계}}{\text{학술지 } K \text{에 논문발표한 저자 수}}$$

학술지 PPI는 해당 학술지를 우선적인 투고 대상으로 고려하는 충성도가 높은 연구자 집단의 형성 정도를 반영한다.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전혀 발표하지 않은 저자는 제외하고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집단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해당 학술지에만 투고하면 1.0이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를 더 많이 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 학술지 PPI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제나 분야가 특화된 학술지여서 특정 주제/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해당 학술지에 집중적으로 투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학파나 학맥이 결부된 학술지여서 학문적 입장이 공통되거나 학문적 계파로 엮인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투고할 경우에도 학술지 PPI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Nicolaisen & Frandsen(2021)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

지 10종의 저자집단을 학술지별로 20년 동안 통시적으로 추적하였다. 이들은 특정 연도에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 중에서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같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던 저자를 귀환저자(returning author)로 규정하여 비중을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A 학술지에 2012년에 논문을 게재한 어떤 저자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A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던 적이 있으면 그 저자는 귀환저자로 간주된다. 해당 연도에 A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모든 저자 중에서 귀환저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A 학술지와 연관된 연구자 공동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Scientometrics*, *JASIST*, *Journal of Documentation*의 3개 학술지는 귀환저자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서 지속적으로 투고하는 연구자 공동체가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뚜렷함을 밝혔다. 반면에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와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는 귀환저자의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관련 연구자 공동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 Choi(2017)가 제안한 PPI 공식과 Nicolaisen과 Frandsen(2021)이 제안한 귀환저자 비율은 모두 값이 높을수록 해당 학술지와 연관된 연구자 집단의 형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데이터 확보의 난이도 면에서는 귀환저자 비율이 더 우수하며 지표의 민감도 면에서는 PPI 공식이 더 우수하다. PPI 공식은 해당 학술지에 투고한 저자들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비율도 파악해야 하므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반면에, 귀환저자 비율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투고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귀환저자 여부 판단은 분석 기간 동안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만 발표한 저자와 여러 편 발표한 저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서, PPI 공식에서는 게재 논문 수를 반영하므로 더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귀환저자 비율에서는 해당 학술지 입장에서 귀환저자가 아니라 신규 저자로 판단된 투고자가 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오던 기성 연구자인지 아니면 새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신진 연구자인지를 구분하지 않지만, PPI 공식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장점이 있다.

3. 분석대상 데이터

3.1 4개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2002년부터 2021년까지 4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4,880편이다. <표 1>의 논문 수 통계량을 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469편(30.1%)으로 가장 많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56편(27.8%), 정보관리학회지 1,127편(23.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28편(19.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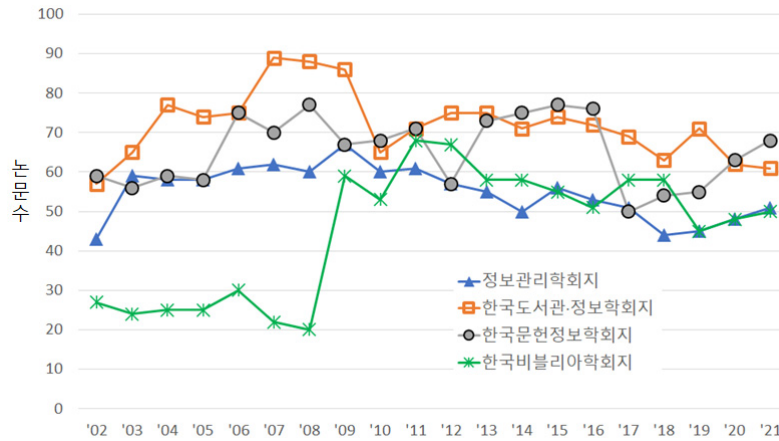
4개 학술지가 모두 계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만 비교해보면 연도별 평균 논문 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70.38편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관리학회지가 53.69편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게재논문 수의 표준편차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9.1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보관리학회지가 6.58로 가장 적었다. 게재논문 수 편차가 가장 큰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연간 75편 내외의 논문을 발간했으나 우수등재지 선정 심사를 받은 2018년에 50편으로 급감한 이후 다시 연간 발행논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연속으로 85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10년에 70편 미만으로 급감한 이후 최근까지 70편 내외의 논문 게재가 지속되고 있다.

3.2 저자 데이터 처리

20년 간 게재된 4,880편 논문 저자들의 KCI 저자 식별기호를 획득한 후, 정제 작업을 거쳐 동일 연구자가 다른 식별기호로 처리된 경우를 확인하여 모두 수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1,825명의 저자가 확인되었으며 1편만 게재한 연구

<표 1> 문헌정보학 종합 학술지 4종의 게재 논문 수 통계량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2-2021	총 논문 수	1,127	1,469	1,356	928
	연평균	54.95	72.00	65.40	45.05
	표준편차	6.61	8.70	8.79	16.32
2009-2021	총 논문 수	698	915	854	728
	연평균	53.69	70.38	65.69	56.00
	표준편차	6.58	6.75	9.10	6.75



〈그림 1〉 학술지 4종의 20년 간 게재 논문수 변화

자가 1,061명, 2편 게재한 연구자가 241명, 3편 발표한 연구자가 120명 등으로 나타나서 멱함수 분포를 보였다. 3편 이상 발표 연구자는 523명(28.7%)이었으며 이후의 20년 범위 지표 분석은 4개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 5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을 발표한 연구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두 학술지는 논문을 한 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도가 2015년으로 나타났다. 정보관리학회지가 2018년에 일시적으로 저자 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저자 수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4. 4개 학술지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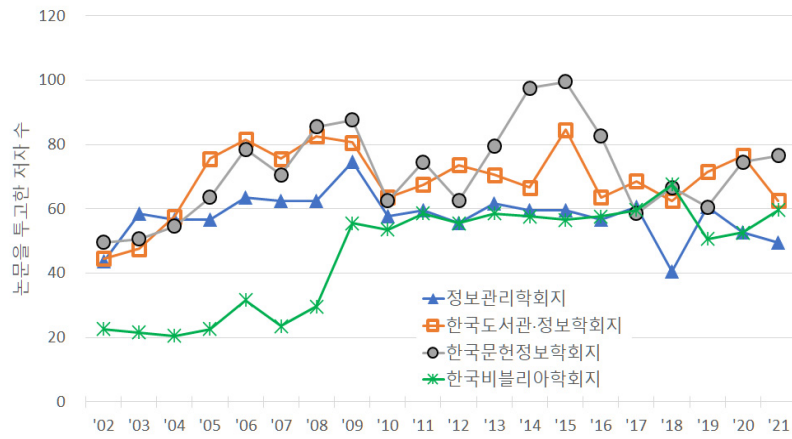
4.2 논문 당 저자 수 분석

4.1 연도별 저자 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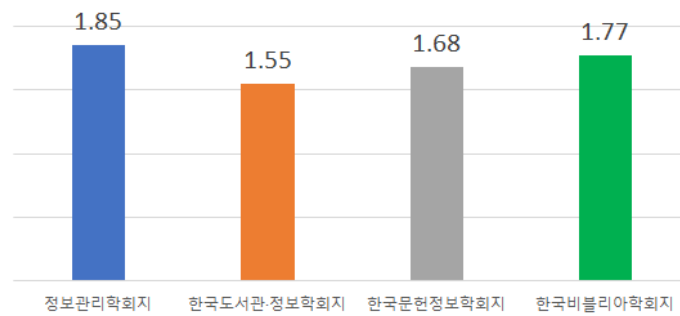
20년 동안 총 3편 이상 발표 연구자 523명 중에서 특정 연도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저자를 학술지별로 집계해보면 〈그림 2〉와 같다. 2009년 이후만 살펴볼 경우 대체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많고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적은 편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014년과 2015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15년에 논문

2002년부터 20년 동안 4개 학술지별 게재논문의 논문 당 저자 수는 〈그림 3〉과 같이 정보관리학회지가 1.85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1.77명,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68명이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55명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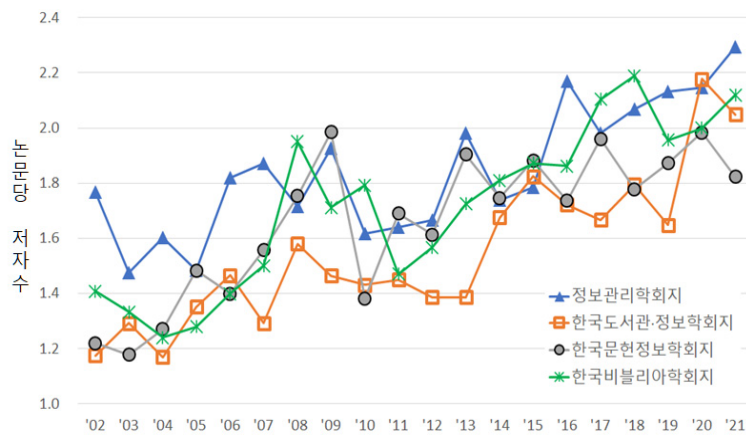
논문 당 저자 수는 〈그림 4〉와 같이 20년간 4개 학술지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는 2002년 1.77명에서 2022년 2.29명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1.18명에서 2.05명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22명에서 1.82



〈그림 2〉 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 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 3〉 학술지별 논문 당 저자 수 평균('02-'2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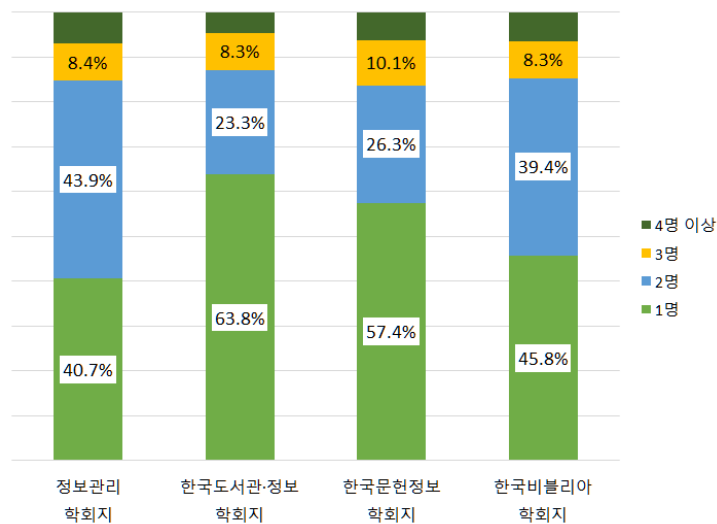
〈그림 4〉 학술지별 논문 당 저자 수 변화('02-'21)

명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41명에서 2.1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4개 학술지 모두 평균 1.2명 이상이 되었으며 2014년 이후 4개 학술지 두 평균 1.6명 이상, 2020년 이후 4개 학술지 모두 평균 1.8명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13년까지 논문 당 저자 수가 1.6명을 넘는 경우가 전혀 없이 가장 낮은 공저 성향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매년 1.6명보다 많은 논문 당 저자 수를 보이면서 공저 연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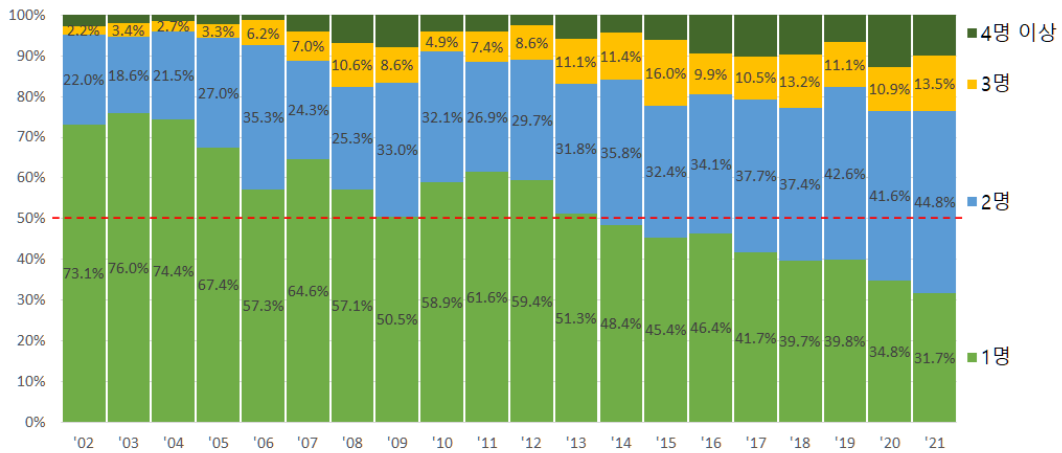
4개 학술지 각각의 저자 수별 논문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단독저자 논문의 비율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63.8%)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57.4%)가 절반 이상으로 높았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45.8%)와 정보관리학회지(40.7%)는 절반 미만이었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유래한 논문 투고를 받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2인 공저 논문의

비중이 4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관리학회지는 유일하게 2인 공저 논문의 비중이 43.9%로 단독저자 논문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는 단독 연구가 대부분인 서지학 분야 논문이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 중에서 김현정(2021)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개 학술지의 단독저자 논문 비중이 감소한 것과 학술지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2인 이상의 공저는 더 세분하지 않았었다.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의 4개 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Kim(2017)의 연구에서는 모든 학술지가 단독저자 논문이 가장 많았었는데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4개 학술지를 통합하여 20년 간 저자 수별 논문 비율 변화 추세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2002년~2004년의 3년 간에는 단독 저자 논문이 전체의 3/4 정도인 73.1%, 76.0%, 74.4%에



<그림 5> 각 학술지의 저자 수별 논문 비율('02-'21)



〈그림 6〉 저자 수별 논문 비율 변화('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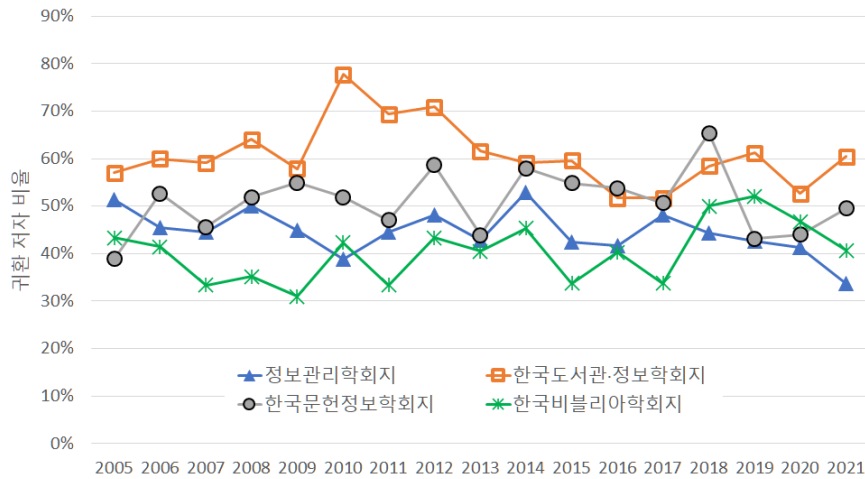
달했었다. 이 비율은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치지만 2013년 51.3%까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 48.4%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단독 저자 논문이 전체의 1/2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9년 이후는 2인 공저 논문이 42.6%로 단독저자 논문의 39.8%보다 많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문헌정보학 4개 학술지 논문은 2002년에는 단독저자인 경우가 70% 이상이었으나 2021년에는 거꾸로 공동저자인 경우가 70%에 가깝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저자 논문 중에서는 2인 공저 논문의 비중이 2015년 32.4%에서 2021년 44.8%까지 급증하였다. 결국 2015년 이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공동저자 논문의 급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단독저자 논문이 차지하던 비중의 상당수를 2인 공저 논문이 차지하게 된 것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공저논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5. 학술지별 출판 선호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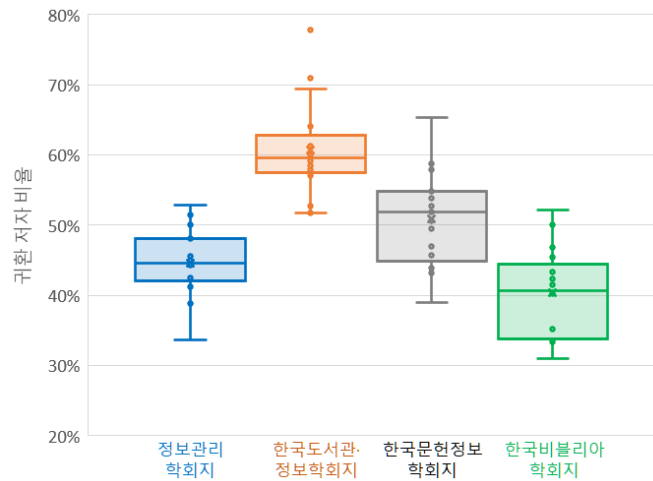
5.1 학술지별 귀환저자 비율 분석

여기서는 4개 학술지의 귀환저자 비율을 측정하여 각 학술지와 연계된 연구자 공동체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귀환저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전 3년 동안의 투고 여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2002년부터의 투고 기록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귀환저자 비율 측정이 가능하다. 4개 학술지별로 2005년부터 17년 간의 귀환저자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7〉과 같고, 연도별 값 17개의 분포와 세부 통계량은 〈그림 8〉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귀환저자 비율은 일회성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가 적을수록 높아진다. 석사학위논문에서 비롯된 논문을 발표한 석사학위 소지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



〈그림 7〉 4개 학술지의 연도별 귀환저자 비율



〈그림 8〉 각 학술지의 연도별 귀환저자 비율 분포('05~'21)

〈표 2〉 각 학술지의 연도별 귀환저자 비율 통계량('05~'21)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대	52.9%	77.8%	65.3%	52.1%
Q3	48.1%	61.5%	54.8%	43.4%
중앙값	44.6%	59.6%	51.9%	40.7%
평균	44.6%	60.7%	50.9%	40.4%
Q1	42.5%	57.8%	45.7%	33.7%
최소	33.7%	51.7%	38.9%	31.0%

지의 귀환저자 비율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귀환저자 비율(평균 50.9%)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귀환저자 비율(60.7%)이 더 높은 것은 꾸준히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집단의 형성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귀환저자 비율이 높다는 현상에 대해서 해당 학술지와 연계된 연구자 공동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 학술지의 투고자 집단이 고착되어 있고 저변이 넓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전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던 신진 연구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첫 논문을 발표하는 시기에는 귀환저자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학술지에 대한 투고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귀환저자 비율이 낮아진 것이 신진 연구자의 참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오던 연구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투고선호지수 PPI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5.2 학술지별 투고선호지수 PPI 분석

학술지별 투고선호지수 PPI는 3년 범위로 측정하였다. 4개 학술지별로 2002년~2004년 구간부터 2019년~2021년 구간까지 총 18개 구간의 PPI 값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9>와 같고, 연도별 값 18개의 분포와 세부 통계량은 <그림 10>과 <표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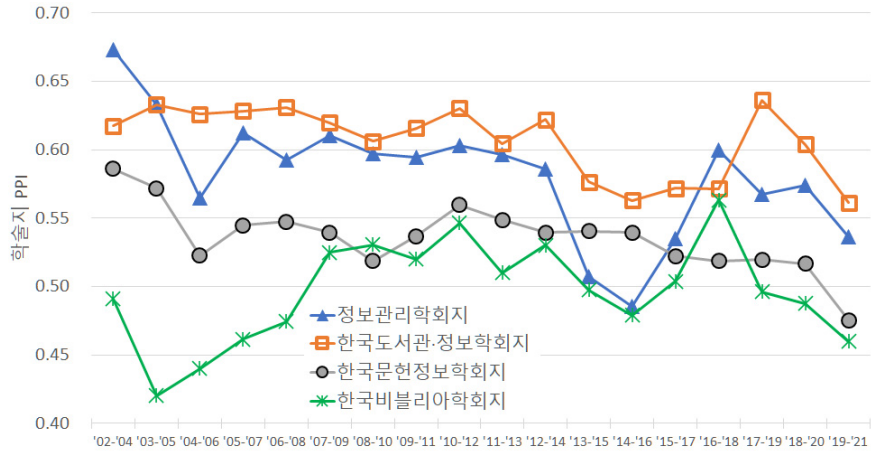
<그림 9>를 보면 2009년이 포함된 시기부터 PPI 수준이 4개 학술지 모두 0.5 이상으로 비슷해졌으며 2015년을 전후하여 한국문헌정보

학회지를 제외한 3개 학술지의 PPI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회복되었다. 2014년까지 분석한 선행연구(Lee & Choi, 2017)에서는 PPI의 변화가 크지 않았었는데, 그 직후에 연구자의 투고 경향이 급변하였다. 이는 2015년을 전후하여 정보관리학회지를 비롯한 3개 학술지 사이의 저자집단 경계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졌으며 여러 학술지에 고르게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들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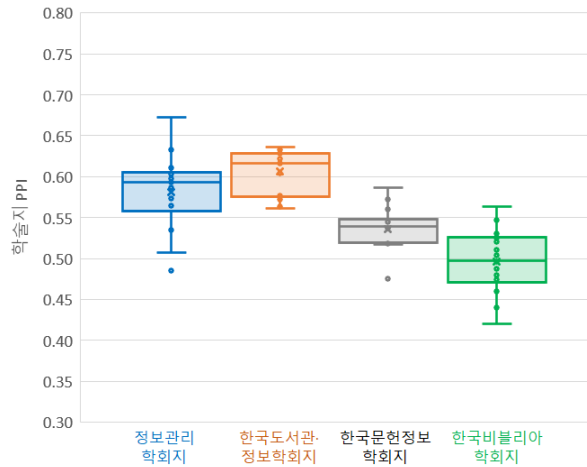
<그림 10>과 <표 3>을 보면 투고선호지수의 수준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정보관리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순으로 나타나서 귀환저자 비율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귀환저자 비율은 정보관리학회지가 3위였는데 투고선호지수는 정보관리학회지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보다 높은 2위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정보관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들 중에서 일회성 저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회성이 아닌 저자들은 정보관리학회지에 집중적으로 투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관리학회지가 정보학 분야로 특화된 학술지라고 인식되는 것(정유경, 2020; Kim, 2017)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지별 귀환저자 비율과 PPI 값을 함께 고려하면 각 학술지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 PPI는 충성도가 높은 저자집단의 형성 정도를 나타내고 귀환저자 비율은 저자집단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귀환저자 비율과 투고선호지수가 모두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지속적으로 투고하는 연구자 공동체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들은 타



〈그림 9〉 4개 학술지의 시기별 PPI(3년 범위 이동 측정)



〈그림 10〉 분석기간 학술지 PPI 분포('02~'21)

〈표 3〉 분석기간 학술지 PPI 통계량('02~'21)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대	0.6730	0.6364	0.5861	0.5632
Q3	0.6020	0.6278	0.5467	0.5236
중양값	0.5935	0.6167	0.5395	0.4968
평균	0.5815	0.6067	0.5361	0.4965
Q1	0.5653	0.5834	0.5204	0.4756
최소	0.4857	0.5612	0.4755	0.4204

학회지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정보관리학회지는 투고선호지수는 높지만 귀환저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보관리학회지는 해당 학술지에 대한 투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구자 공동체를 확보하고 있어서 저자들의 충성도는 높지만, 이들과 함께 일회성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많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지속성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투고선호지수와 귀환저자 비율이 모두 중간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지속적으로 투고하는 연구자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향도 낮지 않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게재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저자집단의 충성도와 지속성이 중간 수준인 것은 저변이 넓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투고선호지수와 귀환저자 비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지속적으로 투

고하는 연구자 공동체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 학술지에 우선적으로 투고를 고려하는 경향도 낮다고 판단된다.

6. 저자집단의 변화와 신진 연구자 집단

6.1 문헌정보학 저자집단의 변화

저자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후속세대의 등장과 기성 연구자의 은퇴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장기적 추세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자의 연도별 발표논문 수로 구성된 연도별 프로파일을 n년(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단위로 병합한 후 이재윤(2022)의 제안과 같이 이전 n년과 이후 n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림 11>과 같이 직전 3년과 이후 3년의 저자별 논문 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저자집단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변화가 적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변화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림 11> 3년 전후 저자별 논문 수 비교 개념도

2002년~2004년의 3년간 저자별 논문 수를 이후 3년 동안의 저자별 논문 수와 비교('02-'04: '05-'07)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2019년~2021년까지 비교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비교대상 저자집단은 20년간 3편 이상 발표한 저자 523명, 5편 이상 발표한 저자 339명, 10편 이상 발표한 저자 197명으로 다르게 설정하여 시도해보았는데,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추세를 비슷하게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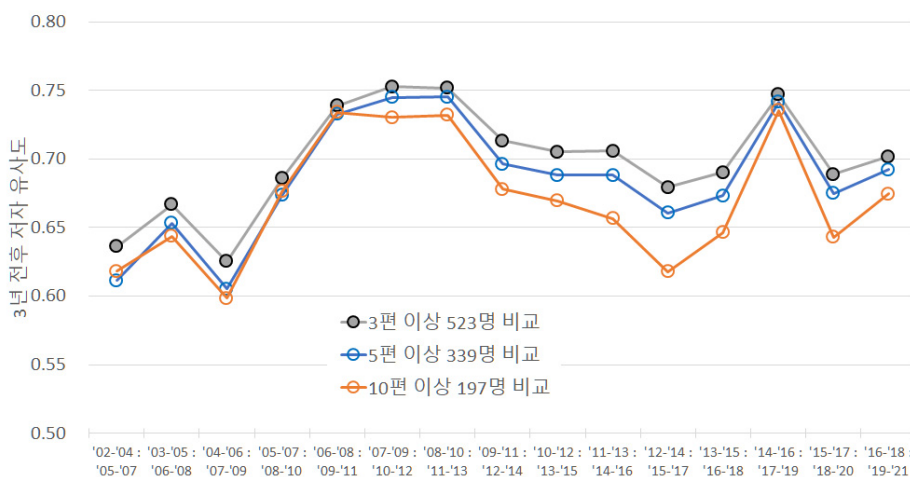
<그림 12>를 보면 분석 기간 20년 동안 초기에는 저자집단의 변화가 큰 편이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저자집단의 변화가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2014년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비교 시점('09-'11: '12-'14)부터 변화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사이('12-'14: '15-'17)에 저자집단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앞서 학술지 PPI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3종이 2015년 전후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2015년 전후의 저자집단 변화가 학술지 PPI에 영향을 끼

쳤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음 절에서 2015년 이후 최근의 학술지별 저자집단의 특성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6.2 2015년 이후 학술지별 저자집단의 특성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7년 동안 연평균 0.5건 이상, 즉 4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 203명이 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향을 PPI로 측정하였다. <표 4>에서는 각 학술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가지는 PPI 수준을 기준으로 연구자를 구분했는데, 최우선(2/3 이상), 우선(1/2 이상), 선호(1/3 이상), 보통(1/4 이상), 참여(1/4 미만이며 1회 이상), 미참여(0회)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학술지에 1/4 정도를 게재하면 PPI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분석 대상 학술지가 4종이었기 때문이다. 각 학술지에 대한 203명 연구자 모두의 PPI 값 분포는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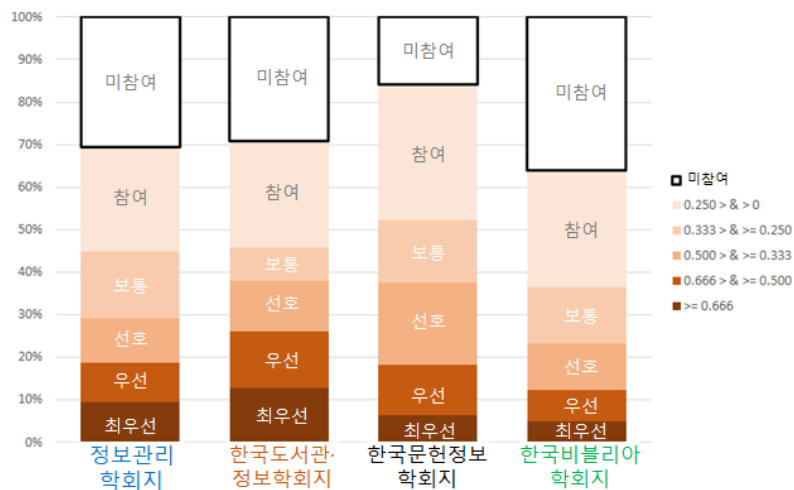
한국문헌정보학회는 <그림 13>과 <표 4>



<그림 12> 3년 전후 저자별 논문 수 프로파일 유사도 변화

〈표 4〉 2015년 이후 4편 이상 게재한 저자들의 학술지별 PPI 수준

구분	PPI 수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우선	$PPI \geq 2/3$	19(9.4%)	26(12.8%)	13(6.4%)	10(4.9%)
우선	$2/3 > PPI \geq 1/2$	19(9.4%)	27(13.3%)	24(11.8%)	15(7.4%)
선호	$1/2 > PPI \geq 1/3$	21(10.3%)	24(11.8%)	39(19.2%)	22(10.8%)
보통	$1/3 > PPI \geq 1/4$	32(15.8%)	16(7.9%)	30(14.8%)	27(13.3%)
참여	$1/4 > PPI > 0$	50(24.6%)	51(25.1%)	65(32.0%)	56(27.6%)
미참여	$PPI = 0$	62(30.5%)	59(29.1%)	32(15.8%)	73(36.0%)
전체		203(100.0%)	203(100.0%)	203(100.0%)	203(100.0%)



〈그림 13〉 2015년 이후 4편 이상 게재한 저자들의 학술지별 PPI 수준 비율

를 보면 미참여 집단의 비중이 다른 학술지의 절반 정도로 가장 낮고 선호 집단과 참여 집단의 비중이 4개 학술지 중에서 가장 높으며 보통 집단의 비중도 2위이다. 전체적으로 참여 수준 이상의 비중이 유일하게 80%를 넘기며, 보통 수준 이상의 비중도 유일하게 50%를 넘기고 있어서 저자집단의 저변이 가장 넓은 학술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발표 논문의 2/3 이상을 집중하는 최우선 집단은 4개 학술지 중에서 3번째로 다소 적은 편이어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저자집단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타 학술지에 비해서 PPI 수준이 높은 최우선 집단과 우선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명 중 26%가 넘는(12.8%+13.3%) 연구자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자신의 논문 중 절반 이상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PPI가 보통 수준인 집단의 비중은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미참여 집단이나 참여 집단의 규모는 문헌정보학회지보다 낮고 정보관리학회지와 비슷하여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 저변은 중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전체적인 연구자 저

변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만큼 매우 넓은 편은 아니지만, 타 학술지에 비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저자들은 보통 수준의 비중이 적고 선호 수준 이상의 충성도가 높은 저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관리학회지는 보통 수준 이상의 저자집단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발표논문의 2/3 이상을 집중하는 최우선 집단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달리 우선 집단이나 선호 집단보다는 보통 수준 집단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관리학회지는 충성도가 높은 연구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연구자 저변이 넓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4개 학술지 중에서 최우선 집단이 가장 적고 미참여 집단이 가장 많은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PPI가 낮은 수준의 집단일수록 비중은 더 커지는 형태이어서 보통 이상의 저자집단 비중이 유일하게 40% 미만에 그쳤다. 따라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충성도가 높은 연구자를 가장 적게 확보하고 있고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 연구자의 저변도 가장 좁은 편임이 확인된다.

6.3 2015년 이후 부상한 신진 연구자 집단의 특성

변곡점이 된 2015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신진 연구자 집단을 파악하여 이들의 학술지 논문 발표 특성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0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들 중에서 2015년 이후 발표한 논문이 80% 이상인 연구자를 조사해본 결과 25명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논문 비중 기준을 75% 이상으로 하면 2021년도에 연구활동을 중단한 중견 연구자 1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80%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정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신진 연구자 25명이 4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건수에 따라서 PPI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충성도 높은 집단과 저변을 모두 더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최우선, 우선, 선호 수준 저자집단의 비중이 모두 4개 학술지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미참여 연구자는 전혀 없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미참여 집단에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저변이 다소 좁아진 것을

<표 5> '15년 이후 '21년까지 4편 이상 게재한 저자 25명의 학술지별 PPI 수준

구분	PPI 수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우선	PPI >= 2/3	0(0.0%)	2(8.0%)	1(4.0%)	0(0.0%)
우선	2/3 > PPI >= 1/2	2(8.0%)	4(16.0%)	0(0.0%)	2(8.0%)
선호	1/2 > PPI >= 1/3	2(8.0%)	7(28.0%)	4(16.0%)	4(16.0%)
보통	1/3 > PPI >= 1/4	4(16.0%)	1(4.0%)	6(24.0%)	4(16.0%)
참여	1/4 > PPI > 0	15(60.0%)	11(44.0%)	11(44.0%)	11(44.0%)
미참여	PPI = 0	2(8.0%)	0(0.0%)	3(12.0%)	4(16.0%)
전체		25(100.0%)	25(100.0%)	25(100.0%)	25(100.0%)

볼 수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최우선 집단에 속한 저자가 없고 선호 수준 이상의 저자집단 규모가 가장 작으므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충성도 높은 저자 확보가 미진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최우선 집단에 속한 저자는 없지만 선호 수준 이상의 저자 집단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아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충성도 높은 저자 확보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참여 연구자가 가장 많아서 저변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7. 학술지 간 저자 공유 관계 분석

7.1 2009년 이후 학술지 간 저자 공유 관계 분석

앞에서는 4개 학술지 저자집단의 충성도와 지속성을 학술지별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4개 학술지 상호 간에 저자집단을 공유하는 정도를 연구자 유인 지수 RAI로 측정하고자 한다. RAI는 한 학술지가 다른 학술지의 저자들을 유인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두 학술지 간 RAI는 비대칭적 관계로 측정된다. A 학술지의 저자들이 B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비율과, B 학술지의 저자들이 A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비율은 동일하지 않다. 학술지 J가 학술지 K의 저자들을 유인하는 정도, 즉 학술지 K의 저자들이 학술지 J에도 논문을 발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RAI(J, K)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RAI(\text{학술지 } J, \text{ 학술지 } K) = \frac{\text{학술지 } K \text{의 각 저자들의 학술지 } J \text{에 대한 } PPI \text{ 합계}}{\text{학술지 } K \text{에 논문발표한 저자수}}$$

반대로 학술지 J가 K에게 주는 RAI, 즉 학술지 K가 학술지 J의 저자들을 유인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RAI(\text{학술지 } K, \text{ 학술지 } J) = \frac{\text{학술지 } J \text{의 각 저자들의 학술지 } K \text{에 대한 } PPI \text{ 합계}}{\text{학술지 } J \text{에 논문발표한 저자수}}$$

두 학술지가 서로 주고 받는 RAI 값은 상대방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들을 얼마나 자기 학술지의 저자로 끌어들이는가를 나타낸다. 학술지 J가 학술지 K에 주는 RAI보다 받는 RAI가 더 높다면 학술지 J의 저자들을 학술지 K가 저자로 유인하는 경향보다 학술지 K의 저자들을 학술지 J가 저자로 유인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학술지 J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들이 4개 학술지 전체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J에 발표한 비율이 PPI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을 다른 학술지 각각에 발표한 비율이 주는 RAI이다. 따라서 PPI와 주는 RAI 값 3개를 합산한 값은 항상 1.0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학술지 J가 다른 학술지에게 주는 RAI는 학술지 J의 PPI와 반비례하게 된다. 저자집단의 충성도가 낮아서 자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이 낮으면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이 높게(다른 학술지의 저자로 쉽게 유인되게) 된다. 또한 RAI의 변화는 저자집단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학술지 J가 학술지 K에게 주는 RAI가 낮아진다면, 학술지 J의 저자집단이 학술지 K에 투고하는 정도가 감소한 경우이므로 저자집단의 독자성이 강화되는(고유 저자집단을 더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4개 학술지가 모두 계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0.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201명이다. 이들중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이상 게재한 저자들이 모두 학술지 PPI 측정에 포함되고 이들이 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정도로 주는 RAI가 측정된다. 측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대각선 칸의 대괄호 안 값은 학술지 PPI 값이다. 학술지 PPI와 RAI를 함께 제시하여 자체 저자를 저자로 확보하는 비율(PPI)과 타 학술지 저자로 뺏기는 비율(RAI)을 비교하였다. 이 값은 각 열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이 자신들의 논문 중에서 4개 학술지 각각에 논문을 발표한 비율이므로 열 단위로 PPI와 주는 RAI값을 합산하면 1.0이 된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받는 RAI 평균이 가장 높으며 모든 학술지에 대해서 받는 RAI가 주는 RAI보다 더 크다. 이는 저자집단의 저변이 가장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로부터 받는 RAI는 이들 학술지의 자체 PPI보다 더 높은데, 이는 두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이상 발표한 저자들도 평균적으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오히려 더 많이 발표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저자들이 다른 3개 학술지에도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인 주는 RAI는 각각 0.282, 0.282, 0.284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모 학회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치우침없이 가장 포괄적으로 저자집단이 형성된 학술지임이 확인된다.

받는 RAI 평균 2위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학술지에 대해서는 받는 RAI가 주는 RAI보다 크다. 주는 RAI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2개 학술지에 대해서 0.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결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저자들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비율이 낮아서 충성도가 높게 측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받는 RAI 평균 3위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정보관리학회지에 대해서만 받는 RAI가 주는 RAI보다 더 크다. RAI 평균이 가장 낮은 정보관리학회지는 모든 학술지에 대해서 받는 RAI보다 주는 RAI가 더 큰데, 정보관리학회지가 정보학 분야로 특화 학술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서지학 분야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결과로 반영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6> 연구자 유인 지수 RAI('09~'21 13년간 연평균 0.5편 이상 게재한 저자 201명 대상 측정)

		유인되는 학술지 (주는 RAI)				받는 RAI 평균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유인하는 학술지 (받는 RAI)	정보관리학회지	[0.270]	0.169	0.200	0.189	0.18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242	[0.362]	0.274	0.258	0.25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282	0.282	[0.309]	0.284	0.28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206	0.187	0.217	[0.269]	0.203
주는 RAI 평균		0.243	0.213	0.230	0.244	0.233

* 대각선 칸의 [] 안 값은 학술지 PPI

전체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서로 저자집단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두 학술지는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대해서 받는 RAI가 주는 RAI보다 커서 저자들을 많이 유인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다른 두 학술지의 저자들을 유인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서로 간에 저자를 공유하는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인 검정을 위해서 2009년 이후 연평균 0.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201명이 4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건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게재건수에 동률값이 많으므로 비모수분석 기법인 Kendall 상관계수를 적용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저자별 게재건수가 99% 유의수준에서 부정적(-0.215)으로 나타나서 주요 저자집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저자별 게재건수가 가장 긍정적(0.211)으로 나타나서 주요 저자집단이 상당수 겹침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저자별 게재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관계인 학술지가 없으므로 가장 독자적인 저자집단을 확보한 것이 확인된

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와 99% 유의수준에서 게재건수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저자집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학술지가 없었다.

7.2 2015년 이후 학술지 간 저자 공유 관계 분석

이 절에서는 저자집단이 변화한 변곡점이 된 2015년 이후의 4개 학술지 간 저자 공유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연평균 0.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203명이 4개 학술지에 대해 가지는 PPI와 학술지 상호간 RAI를 측정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15년 이후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모든 타 학술지에 대해서 받는 RAI가 주는 RAI보다 크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제외한 다른 학술지에 대해서 유인하는 RAI가 유인되는 RAI보다 고르게 더 크며, 받는 RAI 평균은 여전히 가장 크다. 앞서 2009년 이후 13년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받는 RAI가 모두 높은 입장이었는데 최근 기간만 살

<표 7> '09~'21 연평균 0.5편 이상 게재한 201명의 4종 학술지별 게재건수 간 Kendall 상관계수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0.215**	0.141**	0.06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215**		0.020	-0.06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141**	0.020		0.21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068	-0.062	0.211**	

** 99%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함

〈표 8〉 연구자 유인 지수 RAI('15~'21 7년간 연평균 0.5편 이상 게재한 저자 203명 대상 측정)

	유인되는 학술지 (주는 RAI)				받는 RAI 평균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유인하는 학술지 (받는 RAI)	정보관리학회지	[0.342]	0.172	0.214	0.186	0.19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216	[0.395]	0.256	0.246	0.23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264	0.247	[0.339]	0.262	0.2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177	0.186	0.191	[0.306]	0.185
주는 RAI 평균		0.219	0.202	0.220	0.231	0.218

* 대각선 칸의 [] 안 값은 학술지 PPI

펴본 경우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더 크게 받는 RAI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저자집단이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정도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대상으로도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분석 기간을 2015년 이후로 제한했을 때 모든 학술지의 받는 RAI 평균과 주는 RAI 평균이 감소하였고, PPI 값은 증가하였다. 이는 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가 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므로, 학술지 간 저자집단의 공유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일하게 정보관리학회지의 받는 RAI 평균만 약간 증가(0.186→0.191)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및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대해서 받는 RAI가 증가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가 이들 2개 학술지의 저자들을 최근에는 약간 더 유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2015년 이후 모든 학술지에 대해서 받는 RAI보다 주는 RAI가 더 크며 받는 RAI 평균이 가장 낮고 주는 RAI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저자들은 타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성향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8. 결론 및 제언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의 저자집단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4개 학술지의 공동저자 논문은 2002년 게재논문 중 30% 미만이었으나 2014년 이후 5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70%에 가깝게 비중이 높아졌다. 공동저자 논문 중에서는 2인 공저 논문의 비중이 201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단독저자 논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학술지 단위에서는 정보관리학회지의 공저논문 비중이 가장 높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공저논문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논문 당 평균 저자수도 크게 증가하여 모든 학술지의 논문 당 평균 저자 수가 1.6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에는 3단계 BK21 플러스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면서 2014년부터 점차 연구팀 단위의 공저 논문이 증가하였고, BK21 사업에 참여한 학문후속세대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위를 받기 시작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4개 학술지와 연관된 연구자 공동체 형성 정도는 학술지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는 각 학술지의 투고 여건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귀환저자 비율과 투고선호지수 PPI 분석 결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저자집단이 충성도와 지속성 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 연구자의 수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비해서 많은 편이어서 저자집단의 저변은 중간 수준이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저자집단은 충성도와 지속성 면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나 논문을 게재한 저자가 가장 많아서 저자집단의 저변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투고가 가능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저자집단의 지속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중에서 정보관리학회지 저자집단의 충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학 분야로 특화된 학술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저자집단의 충성도도 낮게 나타났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미참여 집단의 규모도 가장 커서 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4개 학술지 전체 저자집단은 2015년이 변곡점이 되어 신진 연구자가 다수 등장하면서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저자 논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014년과 2015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15년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며, 두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도가 2015년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2013년부터 시작된 3단계 BK21 사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

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여러 대학이 3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집단연구가 활성화되어 공동저자 논문이 급증하였고, 이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저자집단의 변화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변곡점이 된 2015년 이후 부상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만 충성도 높은 집단과 저변을 모두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저변이 다소 좁아졌으며, 정보관리학회지는 충성도 높은 신진 연구자 확보가 미진하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충성도 높은 저자 확보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미참여 연구자가 가장 많아서 연구자 저변이 여전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4개 학술지 간 저자 공유 정도를 RAI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저자집단에는 다른 3개 학술지의 저자집단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자집단의 저변이 가장 넓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저자들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저자집단의 높은 충성도와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서로 저자집단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관계이며,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저자들을 상당수 유인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반대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저자들을 유인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서로 간에도 저자들

공유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전반적인 저자집단의 저변이 가장 넓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저자집단의 충성도와 지속성이 매우 높으며 신진 연구자를 저자집단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는 강점이 뚜렷하다. 이에 비하면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저자집단의 저변이 다소 부족하고 지속성도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두드러진 이 두 학술지에 대해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김수정 외, 2022)를 바탕으로 간단한 발전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저자집단의 충성도와 지속성이 모두 낮은 편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다른 학술지와 차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2021년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은 오히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미 다수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기성 연구자 집단을 두고 타 학술지와 경쟁하는 것은 포화된 레드 오션에만 머무르는 전략이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석사학위논문을 발전시킨 논문투고도 접수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연구자 집단에 갓 진입한 학문후속세대의 논문투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전략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학문후속세대가 전문 연구자로 계속 활동하기보다는 실무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저자집단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실무와 연계된 현장연구 논문의 투고를 유도하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모든 학술지에 대해서 받는 RAI보다 주는 RAI가 더 크며 받는 RAI 평균이 가장 낮은 정보관리학회지는 유인하지 못하는 타 학술지의 저자들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저자들이 정보관리학회지에 투고를 고려할 때 장벽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정보관리학회지가 상대적으로 정보학 영역에 특화되어 있고 서지학 분야 논문은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영역 측면에서 느끼는 장벽일 수도 있다. 정보학 영역에 대한 특화가 학술지로서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보학과 관련된 문헌정보학 외부 분야에서의 투고를 유인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로부터 인용되는 횟수는 4개 학술지 중에서 정보관리학회지가 가장 많다(정유경, 2020). Lee와 Choi(2017)의 연구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저자들이 정보관리학회지에도 상당히 많이 투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관리학회지는 융합연구나 학제적 연구 강화를 통해서 타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을 저자집단으로 수용하는 것이 발전 전략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신진연구자 집단의 투고 경향을 보면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한 연구자의 충성도가 가장 낮은 편인 반면, 공동연구 비율은 정보관리학회지가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정보관리학회지는 게재 논문의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저자집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정보관리학회지도 실무와 연계된 현장연구 논문의 투고를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는 4개 학술지 이외에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 특화 학술지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4개 학술지 저자들이 문헌정보학 분야가 아닌 타 분야 학술지나 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4개 학술지 간 상대적인 동향으로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서, 김혜진 (2020). 문헌정보학 분야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333-352.
<http://doi.org/10.3743/KOSIM.2020.37.2.333>
- 김수정, 이종욱, 정인영, 오상희 (202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319-345.
<http://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김현정 (2021). 문헌정보학 분야의 공동연구 추이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2002-202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149-169.
<http://doi.org/10.14699/kbiblia.2021.32.2.149>
- 노정순 (2006). 국내외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에서 추론통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119-138. <https://doi.org/10.4275/KSLIS.2006.40.1.119>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https://doi.org/10.4275/KSLIS.2002.36.3.287>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7-315. <http://doi.org/10.16981/kliss.41.2.201006.297>
- 이재운 (2014).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지수에 대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153-179. <http://doi.org/10.3743/KOSIM.2014.31.3.153>
- 이재운 (2022).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주제 변화시점 분석방법. 제29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9-235.
- 이종욱, 김수정, 오상희 (2023).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365-386.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365>
- 장수현, 남영준 (2022). 문헌정보학 분야의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9(3), 263-292.
<http://doi.org/10.3743/KOSIM.2022.39.3.263>

- 정유경 (2020).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인용 네트워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21-238.
<http://doi.org/10.4275/KSLIS.2020.54.4.221>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http://doi.org/10.3743/KOSIM.2018.35.2.089>
- Hsieh, J. L. (2017). Author publication preferences and journal competi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2), 365-377. <https://doi.org/10.1002/asi.23657>
- Kim, E. (2017). Team size pattern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429-447. <http://doi.org/10.16981/kliss.48.2.201706.429>
- Lee, J. Y. & Choi, S. (2017).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changes of Korean LIS journals' states with journal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81-95. <https://doi.org/10.3743/KOSIM.2017.34.2.081>
- Lee, J., Yang, K., & Oh, D.-G. (2020).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a publication venu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earned Publishing*, 33(3), 323-332.
<https://doi.org/10.1002/leap.1300>
- Nicolaisen, J. & Frandsen, T. F. (2021). Journals as communities: a case study of core journals in LI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 510-514. <https://doi.org/10.1002/pr2.48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yung Wook, Choi, Ye Jin, & Nam, So-Yeon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3 to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http://doi.org/10.3743/KOSIM.2018.35.2.089>
- Jang, Su Hyun & Nam, Young Joon (2022).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n literac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3), 263-292. <http://doi.org/10.3743/KOSIM.2022.39.3.263>
- Jeong, Yoo Kyung (2020). Journal citation network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21-238. <http://doi.org/10.4275/KSLIS.2020.54.4.221>

- Kang, In-Seo & Kim, Hea-Jin (2020). Analysis of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2), 333-352. <http://doi.org/10.3743/KOSIM.2020.37.2.333>
- Kim, Hyunjung (2021). An investigation of research collaboration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through co-authorship relations, 2002-2020.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149-169. <http://doi.org/10.14699/kbiblia.2021.32.2.149>
- Kim, Soojung, Lee, Jongwook, Jeong, In Yeong, & Oh, Sanghee (2022).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319-345. <http://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Lee, Jae Yun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entrality measures for analyzing research collaboration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153-179. <http://doi.org/10.3743/KOSIM.2014.31.3.153>
- Lee, Jae Yun (2022). How to analyze the point of change of research topic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29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9-235.
- Lee, Jongwook, Kim, Soojung, & Oh, Sanghee (2023).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onlin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365-386.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365>
- Lee, Myeong-Hee (2002).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287-310. <https://doi.org/10.4275/KSLIS.2002.36.3.287>
- Lee, Soosang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Kore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97-315. <http://doi.org/10.16981/kliss.41.2.201006.297>
- Ro, Jung-Soon (2006). A study on the use of inferential statistic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119-138. <https://doi.org/10.4275/KSLIS.2006.40.1.119>
-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